불교가치, 대국민 기후대안으로 확대

‘생명전환 불교행동’ 어떻게 진행되나

조계종 담화문으로 본 기후대안
이례적으로 구체적 전략 담아내
“사찰 차원서 실천 이끌어낼 것”
불교적 삶의 방식 대사회적으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발표한 담화문은 기후위기 시대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과 실천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환 · 지족 · 순환 · 참여 4가지 전략기조를 토대로 ‘기후위기 극복 탄소 중립을 위한 조계종 생명전환 불교행동’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를 통해 불교계가 불교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삶과 사회적 전환을 이끌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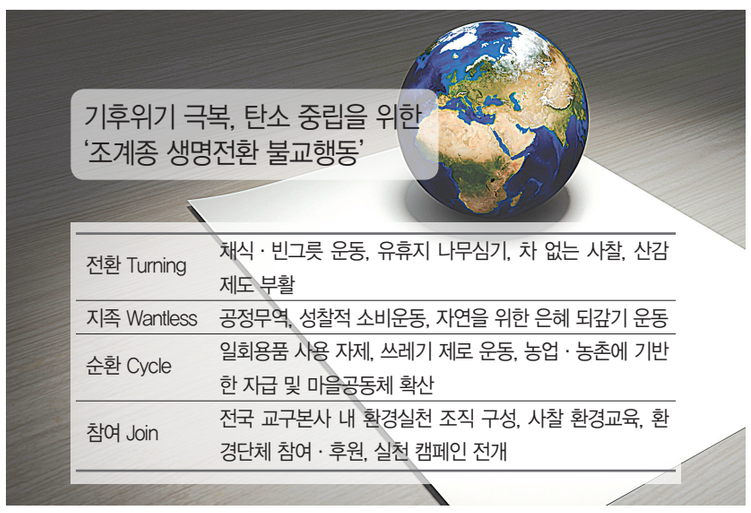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조계종 생명전환 불교행동’의 일환에서 국민들에게 전하는 구체적인 의제를 던졌다는 점이다. 전환, 지족, 순환, 참여 네 가지 전략기조는 향후 10년간 종교계와 국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향후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환’은 탄소제로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생명살림 사회로의 전환, 음식문화 생활의 전환으로 꼽힌다. 이는 석탄 기반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에너지 절약은 물론, 유휴지 나무심기, 차 없는 사찰 운동, 산감제도의 부활, 태양광 시설 등이 사찰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실천적인 방안도 점진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권을 넘어 자연권 · 생명권 옹호를 통한 생명살림 인식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음식문화의 전환은 불교적 식습관의 사회화 운동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바로 육식 자제, 채식으로의 전환이다. 발우공양 문화에 토대를 둔 빈그릇 운동과 소식 운동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불교계가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천방안 중 하나다.

불교적인 식습관인 채식과 발우공양을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대국민 실천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지족’은 이미 불교의 미덕으로 알려져 있는 생활방식이다. 청빈한 소비와 무소유, 나눔, 함께 협동하는 나눔공동체 등이 대표적이며, 조계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와 고마움을 기후위기 시대의 희망으로 보고 자연과 생명의 은혜를 되갚는 ‘은혜 되갚기 운동’도 제안했다.



‘순환’은 비닐, 플라스틱 등 썩지 않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용품 사용을 확대하는 ‘썩히기, 거름되기 운동’이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쓰레기 제로 사회를 목표로 삼을 것을 제시하고 안 쓸 물건 거절하기, 재활용과 재사용, 오래쓰기 등을 권유했다.

마지막 전략기조인 ‘참여’에는 전국 사찰과 불자들을 시작으로 대사회 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 있다. 전국 교구본사 환경실천 단위를 구성해 지역별 환경 사안에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교구 본말사 법회에서 스님들이 환경을 주제로 법문하거나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매년 1회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제로 포럼을 열거나 사찰과 함께하는 실천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이 이번 담화문에서 각 의제에 대한 실천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은, 일반적인 선언을 넘어서 보다 대사회적이고 대국민적인 차원의 실천적인 계획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종단 차원에서 사찰과 불자,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핵심 과제는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후속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향후 불교계와 이웃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는 가운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교문화 견인할 ‘한국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 창립

6월 7일 증명 원행 스님
초대회장엔 정광진 감독
공연 예술 포교활동 추진

불교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결집해 불교문화 발전을 통한 포교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문화계 각 분야별 불자 예술인들의 모임은 있었지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연합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한국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총연합회)는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새롭게 출범한 총연합회에는 문화예술계 12개 분야 12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회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연합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으로 모신 가운데, 도법 스님과 전무송 배우가 명예회장을 맡았다. 또 배우 이대로 · 박웅 · 최종원 · 강부자 · 선우용녀 · 전원주, 강인덕 씨를 비롯해,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구본일 BTN 사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홍봉구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등 문화예술계와 인연이 있는 각 분야 인사들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총연합회는 향후 불교공연예술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홍포하고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불교문화 창달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총연합회는 설립취지문에서 “1700년 유구한 한국불교 역사는 다양한 문화예술이 화엄으로 꽃피었던 시간이었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불교문화는 정체되고 빛을 잃어갔다”며 “불자 문화예술인들은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불교예술문화의 부흥을 꿈꾸며 총연합회 창립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연합회는 각 회원들의 기량을 통해 삼보를 찬탄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불자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고 지원 · 육성할 뿐 아니라 불교 종단과 단체, 지역사찰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불교예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자문화 예술인의 결집과 화합, 보호 및 지원, 삼보 외호 등을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연합회가 사찰과 불교 단체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가 되어 사찰이 지역문화의 구심이 되고 불교단체가 새로운 불교문화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광진 초대회장은 “총연합회 활동을 통해 모든 색이 태어나 작용하고 공으로 돌아가는 만물의 본행을 궁구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불교문화예술을 꽃피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지희 기자

인도 분황사 건립불사, 코로나에도 순항

6월 1일 총도감 부다팔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서 보고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서 진행중인 분황사 건립 불사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부다가야 건립 총도감 부다팔라(본원) 스님은 6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그동안의 공사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사진〉 분황사 건립불사는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점사업이다.

부다팔라 스님에 따르면 현재 분황사는 대웅전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붕 서까래 및 창호조립을 앞두고 있다. 요사채와 보건소는 부지정비 및 기초공사를 마쳤으며 향후 지붕공사 및 단청, 조경공사 등이 예정된 상황이다.

분황사 건립불사는 최근 인도의 폭염과 코로나19 감염자수 급증 등의 상황으로 우려를 낳았다. 부다팔라 스님은 이에 대해 원행 스님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처님 가피로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헌신적으로 불사에 동참하고 있는 박철수 도편수 등 한국 기술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 데 이어 부다팔라 스님과 건립 관계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전했다. 특히 “인도 현지의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공사를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분황사 건립공사가 향후 인도 현지에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거점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부다팔라 스님에게 향후 분황사 상량식에 사용할 상량문을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로 위기 처한 남방불교 도와요”

로터스월드 · 전국비구니회, 긴급캠페인 전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사찰 공양물 끊겨 운영위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남방불교 전통을 잇는 불교국가 사찰과 스님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사찰 운영의 근본적인 토대인 탁발공양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스님들의 생계는 물론 수행을 지속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가 위기에 처한 남방불교 스님들을 위한 긴급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불교계의 정성을 모아 남방불교 수행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6월 14일부터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 사찰 긴급지원 캠페인 ‘탁발이 어려워진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를 전개한다. 모연된 후원금은 각 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로터스월드 지부를 통해 현지 사찰에 전달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로터스월드는 현지 사찰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가장 상황이 열악한 사찰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탁발을 진행하지 못하는 남방불교 사찰과 스님들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남방불교 전통에 따르면 스님들은 공양물이 아닌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지 못하며 공양을 요구할 수 없다. 탁발공양이 급감하면서 스님들의 생계는 물론, 사찰 운영 및 사찰 차원의 사회적 회향인 복지사업에도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지원금은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지부를 통해 현지로 전달돼 사찰과 스님들을 위한 식료품 공양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사찰의 도움으로 살아온 고아 등 취약계층에게도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로터스월드 각 지부는 현재 지원 대상 사찰을 선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로터스월드측은 “지원의 시급함을 고려해 일정 규모의 후원금이 모아지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각 사찰별 후원 규모는 대략 월 2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 종료 시기는 해당 국가의 코로나19상황과 사찰의 독자적인 운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02)725-4277, 농협, 301-0059-6339-11, 예금주 : 로터스월드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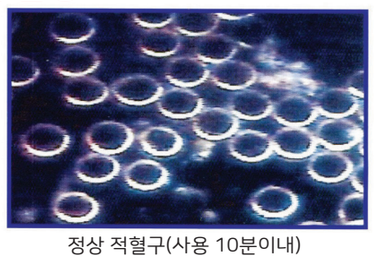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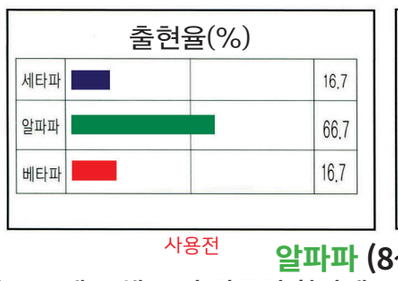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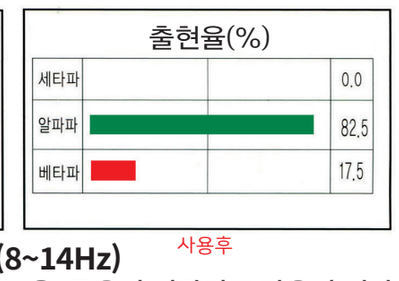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BLOOD MATE® 순비누:120g 9개 ~~270,000원~~ ➡ 100,000원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주)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삼강